

톱 걸그룹은 이렇게 아티스트가 된다

‘걸그룹 명가’ JYP엔터테인먼트 2015년 내놓은 걸그룹 ‘트와이스’



아이돌 그룹의 인기 지속성은 정답이 없는 난제다. 수많은 아이돌이 명멸하는 이유다. 해법은 있다. 보이그룹 중엔 ‘방탄소년단’(BTS)이 보기라면 걸그룹 중에서는 ‘트와이스’가 예다.

트와이스는 ‘걸그룹 장인’으로 통하는 프로듀서 박진영(47)이 크리에이티브 총괄 책임자(CCO)를 맡고 있는 ‘걸그룹 명가’ JYP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내놓은 걸그룹이다.

‘트와이스’는 JYP의 기존 색깔을 벗어나 주목 받았다. 2000년대 후반을 풍미한 톱그룹 ‘원더걸스’의 복고도, 데뷔곡 ‘배드 걸스’로 단숨에 정상에 오른 걸그룹 ‘미쓰에이’이 애크러티브한 포퍼니스와도 궤를 달리했다.

4년차를 맞은 올레 자타공인 명실상부 톱 K팝 걸그룹이다.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최근 북아메리카에서 투어를 돌아 4만1000명을 끌어 모았다. 별다른 프로모션 없이 거둔 쾌거다.

일각에서는 트와이스가 변곡점을 맞았다고 본다. 멤버들이 부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미나(22)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쉬고 있다. 지효(22)는 프로

젝트 그룹 ‘위너원’ 출신 강다니엘(23)과 열애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김모(23)는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36)과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중에 노출된, 아이돌이라면 으레 거쳐 거쳐야 할 성장통이다. 본래에도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약간의 흔들림 또는 연착륙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대기권 같은 것이다.

데뷔 초창기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에 집약돼 있는, 킬러팝을 내세웠다. 밝고 경쾌하며 에너제틱하고 구김살 없는 음악 색깔이 멤버들에게 그대로 묻어났다.

‘틴팝(teen pop)’의 대표주자였다. 10대를 타깃으로 한 음악으로 10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별칭도 귀염성이 강조된 ‘트롱이들’이었다.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애’라는 수식에서 보듯, 아홉 멤버들의 외모에도 방점이 찍혔다.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기 시작한 것은 올레 4월 발매한 미니 7집 ‘팬시 유’부터였다.

트와이스의 대표 히트곡을 탄생시킨 블랙아이드필름과 전군이 작곡과

작사를 맡은 타이틀곡 ‘팬시 유’는 이전 곡들과 달랐다. 트렌디한 감성과 우아한 플루트 사운드가 조화된 ‘멜로루 무드 팝’ 댄스곡이다.

노랫말 분위기와 무대 정서도 바뀌었다. “누가 먼저 좋아하면 어때”, “지금 너에게로 갈래” 등의 노랫말과 함께 그동안 발랄한 트와이스에서 볼 수 없었던 도발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특기할 만하다. 일사분란했지만 상큼했던 안무도 파워풀한 군무로 변신했다. ‘걸크러시의 끝판왕’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트와이스마저 색시함으로!”라고 한탄했다. 그러나 색시는 트와이스의 돌파구가 아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 해도 팬타를 칠 그룹이다. 하지만 그 지점에만 서 있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자 도전이다.

트와이스 콘서트만 찾아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5월 ‘아이돌 콘서트의 성지’로 불리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트와이스 멤버들은 색시함의 절정을 보여줬다. 붉은 옷을 입고 관능적인 몸짓을 선보인 ‘스트로베리’, 사나·다현·쯔위 유닛의 비운세 ‘댄스 포 유’

댄스 커버 무대가 그랬다. 그런데 전류는 관객들의 몸이 아닌 마음에서 나왔다. 트와이스 세계의 자전축은 변한다. 그렇게 성숙하고 발전한다.

트와이스는 아이돌 산업이 절정인 현시점, 대형 매니지먼트사와 대중의 욕망에 의해 발현됐는지도 모른다. 대중이 좋아하고 원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쏘여 담은 대표적인 아이콘으로서다. 열애 스캔들에 들쭉이는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돌이 단지 ‘연예’로 소비되는 시대는 끝났다. 문화적인 것을 넘어 긍정의 메시지를 넘어 사회적인 영향력을 전한다. 한 때 아이돌 앞에 ‘아티스트’라는 수식을 붙이는 것을 꺼려했는데, 이제 자연스러워진 이유다.

대중이 트와이스에게 너무 안정된 이미지를 강조하면, 그만큼 더욱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표현의 자유, 메시지의 깊이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제 트와이스 아홉 멤버들은 꿈(fantasy)을 꿈(vision)으로 치환해내려고 있다. 자신들의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외향과 음악 스타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전에도 작사는 했지만 노랫말에도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담기 시작했다. 최근 앨범 ‘팬시 유’의 가사만 훑어봐도 수긍할 수 있다.

영국 팝스타 찰리 XCX(27)가 작곡과 편곡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던 ‘걸스 라이크 어스’에서 지효는 ‘개개인 이 꾸는 꿈들에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 보자’는 내용의 가사를 불렀다.

지효는 “꿈에 도전하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체영은 “딸기”를 좋아해서 ‘스트로베리’라는 제목의 가사를 썼다. 하지만 단순히 과일 딸기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체영은 “딸기가 아무리 맛있게 가공이 되고 딸기 본연의 맛은 따라갈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예뻐해 달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개그맨 김철민, 폐암말기 판정

개그맨 김철민(52·김철순)이 폐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김철민은 7일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9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별을 해야 하기에 슬픔의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적었다.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김철민은 서울 원자력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리, 간 등으로 전이됐을 가능성도 있다.

김철민의 부친과 모친은 각각 폐암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민의 형으로 가수 나훈아의 모창가수 ‘나훈아’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김갑순(1957~2014) 역시 지난 2014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철민은 “한편으로는 먼저 이별을 하신 부모님과 형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리 슬프지만은 않다”면서 “폐진(폐이식) 친구) 모두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보고 싶다. 남은

시간 여력이 있다면 끝까지 기타 두르고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싶다”고 했다.

김철민은 MBC 공채 5기 개그맨이다. MBC TV 개그프로그램 ‘개그야’ 등에 출연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KBS 1TV ‘열린음악회’ 오프닝 담당자로 활약한 윤창상과 듀오 공연하며 주목 받기도 했다.

뉴스스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 쥐** ▶쥐띠 현명한 판단으로 어려움을 무난히 넘긴다. 모든 일이 화합을 이루니 매사가 순조롭다. 이성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고 해서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 좀 시간을 두고서 결정해야 된다. 남쪽은 불길하니 가지 마라.
- 소** ▶소띠 돈도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운명 탓하지 마라. 현재 처지에서는 좌절만이 답이라고 약해지지도 마라. 결단을 내려 계획을 세우고 인내로 이 순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라. 적색이 길. 타인의 일에는 신경 독 끊자.
- 호랑이** ▶범띠 항상 분주한 일과에 피로가 겹치니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어려운 일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동료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하는게 유리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도 잡을 수가 없어 답답. 동업자와 언쟁 조심할 것. 긍정적으로 추진.
- 토끼** ▶토끼띠 재주도 많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밀고 나가라. 인생은 곡예사의 줄타기다. 어려울 때와 즐거울 때가 대비되고. 재비가 엮갈리는 게임이다. 중단 말고 진전하라. 5, 7월생 조심.
- 용** ▶용띠 겉으로는 진실한 것처럼 대해도 속마음은 이기적인 당신이다. 그런 성격을 버려야만 자신도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1, 5, 9월생은 스스로 만든 목잡한 애정 관계를 청산해야 사업에도 대성할 수 있다. 마음 편한 것이 제일.
- 뱀** ▶뱀띠 답답한 일들이 목전에 있을지라도 침착하게 처신함이 좋겠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반성하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각오로 전진함이 좋겠다. 자녀에게 행운 소식. 7, 8, 9월생 노란색 심자.
- 말** ▶말띠 마음만큼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한 상태. 그러나 미련 버리고 희망을 갖고 전진함이 좋다. 가정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날이다. 건축업 종사자는 텃밭을 생각하라. 1, 3, 5, 9월생은 4, 6, 8월생을 특히 경계하고 조심하라.
- 양** ▶양띠 스자본이라도 과감히 투자하면 생각보다 많이 크다. 진실성과 근면함으로 찬사도 받았다. 어려운 일은 타인에게 협조를 받아서 이루는 수. 애정은 남자 쪽에서 너무 적극적이다. 1, 3, 7월생은 자신감 유무가 승리를 좌우한다.
- 원숭이** ▶원숭이띠 외유이 상심되어 중도에 포기할 염려 있다. 애정은 침전보다는 대화로 감싸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 냉정함을 풀어라. 번돈이나 새로운 것을 구상해도 힘이 못 미쳐 생각만으로 끝나기 쉽다. 11월생 자기 자신을 억제할 것.
- 닭** ▶닭띠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최선을 다할 때. 현재는 힘들지만 조만간 뜻한 바를 성취할 수 있다. 1, 3, 5월생은 애정에 갈등이 있었으나 곧 미운정미 변해 사랑으로 승화할 수. 검정색이 길. 등, 서쪽이 길하다.
- 개** ▶개띠 이성문제가 크나 큰 화근으로 발전할 염려 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배필은 따로 있다. 나이 차이가 많은 것은 편하지만 문제는 불륜 관계이다. 3, 5, 7월생 조심할 것. 여성은 특히 연하의 사람을 경계하라.
- 돼지** ▶돼지띠 마음이 두 곳에 있으니 주위가 신만하여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방황하는 수가 있다. 확실한 계획을 설정해 놓고 노력함이 좋겠다. 자녀 일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대학로 풀러라. 2, 8, 9월생 복쪽 사람 조심함이 좋을 듯.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